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 **

김재웅***

- I. 머리말
- II. 영남지역과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
- III.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자의 성별과 신분계층
- IV.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
- V. 맺음말

국문초록

<강릉추월전>은 1888년에서 1948년까지 영남지역에 21종이 유통되었다. 이 때문에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가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이유를 텍스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강릉추월전> 필사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이다. 당시 혼인을 앞둔 여성들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작품을 집중적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아 신분계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촌사회의 가난한 선비집안 여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4586)

** 이 논문은 한국문화화·한국시가학회 상반기 전국학술발표대회(2024. 6. 28. 부산대)에서 발표하여 수정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 kimjw386@hanmail.net

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강릉추월전>에는 가족이합의 서사와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욕망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남성의 가부장적 이념과 여성의 생활문화적 욕망이 공존하는 <강릉추월전>을 선호했다. 가족이합의 서사를 통해 몰락한 가문을 재건함과 함께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을 염원하는 여성 필사자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강릉추월전>에는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이 풍부하다. 영남 남인계열 선비들은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은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의 집단적 욕망이 내면화된 <강릉추월전> 필사를 통해서 집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릉추월전>에는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필사자는 부모를 습격한 장인을 처벌하는 남편의 효를 옹호하는 기본형 이본을 선호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자결한 아내의 원혼 풀어주는 부연형 이본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아내의 효열보다 친부모의 원수 갚기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강릉추월전>에는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이 풍부하다. 부친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은 가문을 계승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가문을 계승하는 비정상적 방법인 양자 삼기를 통해서라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는 가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본, 유통, 필사의 전통, 여성, 필사자, 문학적 대응, 성별, 신분계층, 성리학, 선비집안

I. 머리말

필사본 <강릉추월전>은 방각본이나 활판본과 달리 필사자가 작품을 손수 베끼는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이 때문에 필사본 <강릉추월전>은 이윤 획득을 위한 상업적 판본과 달리 수많은 이본이 파생되어 작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각본과 활판본이 상업적 출판을 염두에 두었다면 필사본은 지역별 향유층의 다양한 욕망을 반영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사본 <강릉추월전>의 지역별 유통 양상을 분석하면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필사본 고소설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유통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필사본 고소설에 등장하는 필사 기록을 토대로 작품이 유통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유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 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필사본 고소설의 필사 기록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 유통을 확인한 작품은 모두 511종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영남 222종, 호남, 83종, 충청 132종, 경기 50종, 강원 16종, 북한 9종 등으로 나타난다.²⁾ 필사본 고소설은 유교문화적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영남지역에 풍부한 실정이다. 신문물이 급격하게 수용된 서울과 경기보다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공동체문화를 유지한 영남지역에 필사본 고소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리학적 생활문화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된 영남지역에는 다양한 필사본 고소설이 유통되었다.

그렇다면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의 향유층은 어떤 유형의 작품을 선

-
- 1)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219-250쪽.
 - 2)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11-285쪽.

호했는지 궁금하다.³⁾ 영남지역에는 영웅소설, 가정소설, 장편가문소설, 판소리계소설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작품이 유통되었다. 그럼에도 영남지역 필사본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풍부하게 유통되었는지,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필사자의 작품 선호도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 중에서는 <강릉추월전>이 가장 풍부하게 유통되었다.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에 21종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릉추월전>이 영남지역에 풍부하게 유통된 까닭과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⁴⁾ 이러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와 함께 문학사회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에 유통된 <강릉추월전> 25종에 대한 지역별 분류를 통해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필사자의 성별 및 신분계층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텍스트의 변모를 비교하여 영남지역 여성 필사자의 문학생활과 문학적 대응을 문학사회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실증

3) 김정미, 「수용미학과 고소설 독자연구」,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73-493쪽. 백순철, 「규방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여성문학연구회, 2005, 7-31쪽.

4) 서대석, 「<소지현나삼재합>계 변안소설 연구」, 『동서문화』 5집,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3, 214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91, 105-106쪽.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박이정, 2006. 김재웅, 「<강릉추월전> 연구」, 『한국학논집』 2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9, 243-265쪽. 박광수, 「<강릉추월전>의 결말부 부연과 그 의미」, 『어문학』 70집, 한국어문학회, 2000, 179-192쪽. 박광수, 『강릉추월전연구』, 충남대출판부, 2002. 전상욱, 「<월봉기>군 소설의 작품세계」, 연세대 석사논문, 1995. 백운용, 「<강릉추월전>이 구조와 헤어짐과 만남」, 『어문론총』 3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109-141쪽. 김진영, 「<강릉추월옥소전>이 이합구조와 음악의 관계」, 『한국언어문학』 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적 연구와 문학사회학적 방법을 종합하여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영남지역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영남지역과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

영남지역은 필사본 고소설의 유통이 매우 풍부한 고장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 511종 가운데 영남지역에는 절반에 가까운 222종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북과 경남의 고소설 유통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왜냐하면 경북(171종)에는 고소설이 풍부하지만, 경남(39종)에는 고소설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북부지역에서 필사본이 풍부하다면 경남은 합천⁵⁾을 제외하면 필사본의 유통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필사본 고소설의 유통도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사본 고소설은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된 곳에 풍부하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은 1842년부터 1963년까지 120년 동안 유통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영남지역에는 어떤 작품이 풍부하게 유통되었는지 궁금하다. 영남지역에는 <강릉추월전> 12종, <황월선전> 11종, <유충렬전> 9종, <조웅전> 9종, <창선감의록> 9종 등의 작품이 풍부한 실정이다.⁶⁾ 그중에서도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에 가장 풍부하게 유통된 작품이다. 여기에 김광순본 <강릉추월전> 9종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에는 21종이 유통되었다. 따라서 영남지역은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이 매우 풍부한 고장이라 하겠다.

5) 경남 지역은 합천을 제외하면 양반 집성촌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문화의 전통도 비교적 일찍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 지역은 필사본 고소설의 유통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된다.

6)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33-219쪽.

지금까지 <강릉추월전>의 필사 기록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 유통을 확인한 작품은 25종이다. <강릉추월전> 25종에 대한 필사 기록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남지역에는 무려 21종이 분포하고 있다. <강릉추월전>이 영남지역에 풍부한 까닭은 여성 필사자가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필사의 전통을 지속했던 문화적 기반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필사본 <강릉추월전> 25종의 유통지역과 필사자의 성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작품명	작품소장자	필사자의 성별	유통지역 및 책 주인	필사년도 및 기간
강릉추월전①	나손본	이대환, 신전택(이진옥) 필사	경북 풍기 안정면 일원 이생원	계묘(1903) 1월 23일
강릉추월전②	여승구	박승화 부인 김임규	경북 영주 장순 소룡 박승화	1914년(17세)
강릉추월전③	홍시낙	김수길(1914-2001)	경북 문경시 점촌읍	1932년(18세)
리춘백전④	이부영	이유천(1890-1962)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904년(15세)
이춘백전⑤	단국대	임병동의 아내 김영이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동	
강릉추월전⑥	여승구	손씨 부인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강릉추월전⑦	한중연	조소저 필사	안동군 예안면 불원동	무자(1888) 1월 9일
강릉추월전⑧	노재순	노재순의 질부 내천택	경남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무자(1948)
강릉추월전⑨	코베이	김봉환 필사	경북 봉화군 내성면 석평리	신유(1921)1 월22-26
강릉추월전⑩	금요경매	정부인 삼강택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기미(1919) 12월 10일
강릉추월전⑪	김광순84권	조두리 할머니	경남 합천군 묘산면 중촌리	1936년 3-5월
강릉추월전⑫	김광순2권	정갑이(1906-1993) 7)	경북 성주군 수륜면 지촌리	1-10월 초8일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김재웅)

강릉추월전⑬	김광순1권	동성택 15세 필사 이소저(1896-1978)	경북 선산군 해평면 해평리	임자(1912) 1월 25일
강릉추월전⑭	김광순1권		영남 지역 유통	병인(1926) 1월
강릉추월전⑮	김광순1권		영남 지역 유통	임자(1912)
강릉추월전⑯	김광순49권		영남 지역 유통	
강릉추월전⑰	김광순2권		영남 지역 유통	
강릉추월전⑱	김광순2권		영남 지역 유통	
강릉추월⑲	김광순49권		영남 지역 유통	활자본 필사
옥소전⑳	김광순48권		영남 지역 유통	
이춘백전㉑	김광순35권		영남 지역 유통	
강릉추월전㉒	이화여대	신규선(여성)	연산 불암 민도사택 신규선	1915년 필사
강릉추월전㉓	성균관대	전주 이씨	경기도 양주 광암(광사동)	신해(1911) 3월 5일
강릉추월전㉔	여승구	이소저 필사	경기도 여주	임신(1932)
강릉추월전㉕	장정룡		강원도 강릉	경자(1900)

전국에 유통된 필사본 <강릉추월전>은 영남(21종), 충청(1종), 경기(2종), 강원(1종) 등과 같다. 영남지역에는 <강릉추월전> 21종이 유통되었다. 영남지역에 유통된 김광순본 <강릉추월전>은 필사 기록과 유통 현장을 통해서 필사자의 생애를 파악하기도 했다.⁸⁾ 이들 작품이 영남지역에 유통된 것은 분명하다.⁹⁾ 왜냐하면 김광순본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릉추월전>의 필사 기록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영남지역 21종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 김재웅, 「고소설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성주군 정갑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28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218, 313-439쪽.

8) 김광순본, <강릉추월전>⑬의 동성택 이소저에 대한 생애와 작품 필사 과정을 확인했다.

9) 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 1권에 <강릉추월전> 4종, 2권에 <강릉추월전> 3종, 35권에 <이춘백전>, 48권에 <옥소전>, 49권에 <강릉추월> 등과 같이 10종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49권의 <강릉추월>은 활자본을 필사한 작품이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21종은 경북에 풍부하고 경남에는 빈약한 실정이다. 경북은 문경, 봉화, 영주, 안동, 예천, 성주 등의 지역에서 풍부하지만, 경남은 합천(2종)을 제외하면 작품의 유통이 빈약한 실정이다. <강릉추월전>은 경북 북부와 경남 합천에서 풍부하게 유통되었다고 하겠다. 이들 지역은 신문물의 수용보다는 성리학적 규범을 실천하는 공동체문화가 오랫동안 향촌사회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사본 <강릉추월전>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지역별 문화적 기반과 필사자의 작품 선호도를 반영한 게 아닌가 한다.

영남지역에 <강릉추월전>이 풍부한 점은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 필사본 <강릉추월전>이 영남지역에 가장 풍부하게 분포할 줄은 학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이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렇다면 여성 필사자는 <강릉추월전>의 어떤 내용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필사하고 향유했을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지역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대본 <강릉추월전>¹¹⁾은 충청지역에 유통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표지에는 “강능츄월전(江陵秋月傳) 단(單)”으로 적혀있고 내지에는 “을묘원월이십사일이라, 강능츄월전 권지단니라”라고 적혀있다. 작품의 말미에는 “을묘정월 회일 연산 불암 민도스 덕 동창호의 신규선 등서라”라는 필사 기록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대본 <강릉추월전>은 1915년 1월 24일 또는 1월 마지막 날에 필사되었다. 작품이 필사된 지역은 ‘연산 불암’인데 현재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이다.¹²⁾ 이 작품은 민도사 덕의 동창아래에서 신규선이 <강릉추월전>을 필사한 것이다. 신규선은 성동면 개

10)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진단학보』 97집, 진단학회, 2004, 139-187쪽.

11) 이화여대 소장본, <강릉츄월전>.

12) 연산 불암은 현재의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이다. 왜냐하면 1914년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병촌면 불암리는 성동면에 편입되고 불암리는 개척리로 변경되었다. 논산문화원, 『논산 지역의 지명유래』, 1994, 11-567쪽.

척리 민도사 덕의 부녀자로 추정된다. 농한기에 작품이 필사된 것으로 보아 신규선은 글을 아는 가난한 선비집안의 여성으로 추정된다.

이대본 <강릉추월전>¹³⁾는 기본형 이본이다.¹³⁾ 작품 서두는 “강능 상 옥봉 아래 사는 사람이 있도 성은 이요 명은 춘백이라”로 시작한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생략되고 공간적 배경만 등장한다. 작품 말미에는 “고진감래는 인간의 상사라 사람의 한 평생이 어이될 줄 그 뉘 알이요 이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드러 보소 초연고상 설다 말고 말연 분 복 제일이니라 이런 책 등서하여 후세 유전하리라”라는 필사자의 감상평이 등장한다.

경기지역 <강릉추월전>은 작품의 분량이 좀 더 풍부하다. 존경각본 <강릉추월전>¹⁴⁾은 3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 말미에는 “고답이나 하도 신기하기로 기록하여 전하니 후세 사람은 보고 효측하라”라는 필사기록이 등장한다. 책주는 “양주 광암 윤지사덕”이고 필사시기는 “신해 삼월 초오일”이다. 이 작품은 1851년 3월 5일 또는 1911년 3월 5일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백기기는 병신, 성니 전주 이씨” 등의 필사기도 등장한다. 필사자는 윤지사 덕의 부녀자 또는 친척인 전주 이씨가 분명하다. 병신년은 1896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914년 광암이 광사동¹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양주군 광암의 윤지사 덕에 소장된 작품을 전주 이씨 여성이 1896년 또는 1911년 3월 5일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이운학이 중국 천자의 부마로 결혼하는 대목이 장황하게

13) 강원지역에 유통된 장정룡본 <강릉추월전>도 제1계통 기본형이다.

14) 성균관대 존경각본, <강릉추월전> 3권 2책.

15) ‘양주 광암’은 현재의 광사동이다. 광사동은 양주읍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마을이다. 동쪽으로 고읍동, 만송동, 서쪽으로 산북동, 마전동, 남쪽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북쪽으로 덕계동과 접해있다. 광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만 해도 고주내면 광암리, 삼사동, 고읍리, 송랑리 등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후 광암리, 삼사동 전부와 고읍리, 송랑리 일부를 합하여 새롭게 주내면 광사리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광사동은 예전의 광암리에서 광(廣)자와 삼사동에서 사(沙)자를 합한 지명이다.

서술되었지만 어소저가 활약하는 대목은 삭제되어 있다. 또한 이운학과 결혼한 어소저의 비극적 죽음과 원한을 풀어주는 재생 대목도 생략되었다. 다만, 어소저의 무덤을 개봉축하고 향화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데 이운학의 영웅적 활약과 중국 천자의 부마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이 확장되어 등장한다. 더욱이 이운학과 장인 어천추의 용서 갈등과 이운학과 어소저의 부부 갈등도 생략되었다. 이 작품은 활자본¹⁶⁾ 대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존경각본 <강릉추월전>^③ 3권 2책은 양주 광암에 유통된 작품이다. 경기도 양주의 광암 윤지사 덕의 소장본을 그 집안의 여성 전주 이씨가 필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은 사대부 집안에서 필사하고 향유한 작품이다. 사대부 집안에 소장된 <강릉추월전>은 3권 2책으로 분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원수갚기 갈등보다 가족의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상에서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에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통 작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필사본 <강릉추월전>의 이본은 기본형에서 부연형으로 변모했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기본형이 풍부하고 부연형은 2종만 존재한다. 부연형보다 기본형 <강릉추월전>을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기본형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의 성리학적 공동체문화와 향촌사회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의 욕망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Ⅲ.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자의 성별과 신분계층

<강릉추월전>은 친부모를 습격한 도적의 딸과 결혼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이별한 가족과 극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릉추월전>은 중국의 화본소설

16) 덕흥서림본, <강릉추월전>, 『고전소설』 9권, 민족문화사, 1915.

『경세통언』 제11화에 수록된 <소지현나삼재합>의 영향을 수용했음에도 조선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토착화를 거듭한 창작작된 소설이다.¹⁷⁾ 이러한 <강릉추월전>이 영남지역에 풍부한 것은 가난한 선비 집안 여성 필사자의 문학생활과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이본은 기본형이 가장 풍부하다. <강릉추월전>의 이본은 기본형, 부연형, 변이형 등으로 구분한다.¹⁸⁾ 이 작품은 명나라 화본소설에 가까운 필사본 기본형이 형성된 뒤에 부연형이 파생되었고 1915년에 활자본 변이형이 출간되었다. 영남지역 필사본 <강릉추월전> 21종 가운데 19종이 기본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릉추월전>⑦, ⑩은 부연형에 해당한다. 영남지역에 <강릉추월전> 기본형이 부연형보다 풍부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친을 살리기 위해 억울하게 자결한 어소저의 원혼을 풀어주는 부연형보다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남성의 효를 강조하는 기본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의 필사 시기는 1903년, 1914년, 1932년, 1904년, 1888년, 1948년, 1911년, 1921년, 1919년, 1936년 등과 같다. <강릉추월전>은 1888년부터 1948년까지 60년 동안 필사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조 말기와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까지로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했던 격동기이다. 영남지역에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및 해방정국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에도 향촌사회에서는 <강릉추월전>의 필사와 향유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릉추월전>은 한문본 없이 국문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집안에 전해지던 국문본 <강릉추월전>을 대상으로 필사하고 향유한 것으로 보아 영남지역 남성보다 여성 필사자가 풍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17)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이본 형성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2003, 36-57쪽.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사, 2008, 9-376쪽. 서대석,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소설 연구」, 『동서문화』5집,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3, 179-223쪽. 육제용, 「<강릉추월전>의 창작성 고찰」, 『어문학』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253-272쪽.

18) 김재웅, 앞의 박사논문, 59-97쪽.

<강릉추월전> 필사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필사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강릉추월전>은 60년(1888-1948) 동안 영남지역의 문화적 기반 속에서 필사의 전통이 지속되었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19종이 집중적으로 필사되었다. 이 때문에 필사자의 신분계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촌 사회의 가난한 선비집안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비집안 여성이 <강릉추월전>을 필사한 경우는 신전택 이진옥, 김임규, 김수길, 이유천, 김영이, 손씨부인, 조소저, 전소저, 동성택, 정부인 삼강택, 조두리 등과 같다. 영남 선비집안 남성이 작품을 필사한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필사기에 책주로 등장하는 김복환은 <강릉추월전>을 필사했을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소장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강릉추월전> 필사와 향유는 영남지역의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영남 선비집안 여성은 <강릉추월전>을 언제 필사했을까? 작품에 등장하는 필사기록은 1월 25일, 1월 19일, 6월 3일, 2월 4-15일, 1월 22-26일, 12월 10일, 3월-5월 등으로 나타난다. <강릉추월전>은 농한기에 해당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필사되었다. 농한기에 작품을 필사한 선비집안 여성의 연령이 궁금하다. <강릉추월전>을 필사한 김임규(17세), 김수길(18세), 이유천(15세), 전소저(15세), 동성택(15세), 조두리(17세) 등의 여성은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들은 혼인을 앞둔 농번기에 <강릉추월전>을 집중적으로 필사했다. 선비집안 여성이 필사한 <강릉추월전>을 시댁에 혼수품으로 가져가면 친정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새로 발굴하거나 필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노재순본 <강릉추월전>은 경남 합천군 사양리에서 유통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48년 2월 4일에서 15일까지 노재순의 친정 질부 내천택 전소저가 손수 필사했다.¹⁹⁾ 내천택 전소저는 합천군 율곡면 내천의 학자집안에서 출생하여 15살에 <강릉추월

전>을 필사했다고 노재순 할머니가 증언해 주었다. 전소저의 부친은 한문을 공부하는 학자이고 친정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다고 한다. 이 작품은 전소저(18세)가 함천 초계면 원당으로 시집을 때 가져왔다고 한다.

노재순본 <강릉추월전>⑧은 여성 필사자가 선호할 만한 내용이 풍부하다. 예컨대 이춘백과 조채란이 옥문동에서 천정연분을 확인하고 운명적 국제결혼을 한다. 이춘백의 과거급제와 황해감사 부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조부인은 도적녀의 개가 권장을 삼강의 도리로 꾸짖는다. 더욱이 작품의 말미에는 <부인행실록>이 첨가되어 있다. <부인행실록>은 시집간 부녀자의 올바른 행실을 담은 글이다. 영남지역 선비집안 여성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덕목을 적은 <부인행실록>은 선비집안의 위상을 보여주는 책이다.

김광순본 <강릉추월전>⑬는 구미시 해평면 쌍암고택에 소장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최열의 모친 동성택(1896-1978)이 필사했다고 집안사람들이 증언해 주었다. 동성택은 안동에서 15세에 쌍암고택으로 시집왔다고 한다. 쌍암고택에는 <강릉추월전> 외에도 <사씨남정기> 2책, <어룡전>, <이씨효문록> 6책 등의 필사본 고소설이 소장되어 있다.²⁰⁾ 쌍암고택 여성들이 필사한 고소설을 확인한 것은 필사본 유통 현장에 대한 조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쌍암고택 여성들이 필사했던 고소설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것이다.

<강릉추월전>⑨는 봉화군 내성면(봉화읍) 석평리 김봉환 소장본이다.

19) 노재순 소장본, <강릉추월전 권지단나라>, 1-120쪽.

20) 1992년 홍순석이 조사한 『쌍암가장고서목록』에 이러한 작품이 등장한다. <어룡전>과 <옥설화담>은 신해년 5월과 2월에 각각 필사되었다. 이 작품들은 1911년 안동 동성택이 시집을 때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안이씨세덕가>, <한양가>, <북청가>, <해동만화록>, <충남유람가> 등과 같은 가사도 고서 목록에 등장한다. 이러한 가사 작품들은 해평면 쌍암고택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비집안 여성들이 필사한 작품이다. 이는 선비집안 여성들의 독서물은 가사와 소설이 공존하고 있다는 물증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서 가사와 소설이 구분되어 향유되었다고 했지만, 후대로 이행하면서 가사와 소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다.

작품을 필사한 기간은 5일로 매우 짧다.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²¹⁾ 하지만 고서 목록에 공개된 장면을 통해서 영남지역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했다. <강릉추월전>⑩은 금요경매에 등장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정부인 삼강택이 필사했다. 삼강리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정부인 삼강택이 누구인지 수소문했다. 그런데 마을주민 정수흠(남, 78세) 할아버지는 삼강택이 <강릉추월전>을 필사하여 시집갔기 때문에 삼강리에 살지 않는다고 증언해 주었다.²²⁾

김광순본 <강릉추월전>⑪는 함천군 묘산면 중촌리 조두리 할머니가 필사한 작품이다. 조두리 아들 신상열(70세)의 증언에 의하면 모친은 마을의 사돈지와 제문을 필사해 주었다고 한다.²³⁾ 이 작품은 10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지에는 “강능추월전이라”로 적혀있다.²⁴⁾ 조두리본 <강릉추월전>은 노재순본 <강릉추월전>과 내용이 유사한 이본이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천상 옥황상제의 귀환 명령에 대해 이춘백 부자와 조부인, 최부인은 3년 기한을 연장하는 장면도 동일하다. 이 때문에 함천에 유통된 두 작품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 작품은 병자(1936)년 3월 시작해서 5월까지 필사되었다. 그렇다면 조두리본 <강릉추월전>은 노재순본 <강릉추월전>보다 일찍 필사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강릉추월전> 이본은 필사본 75종, 활자본 9종이 존재하고 있다.²⁵⁾ 그중에서 지역별 유통을 확인한 필사본은 영남 21종, 충청 1종, 경기 2종, 강원 1종 등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경북

21) 2014년 고서경매에 등장한 <강릉추월전>의 표지, 서두, 마지막 장만 확인했다.

22) 2016년 5월 20일 삼강리 정부인 삼강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3) 2015년 7월 25일 묘산면 중촌리 조두리 할머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두리 아들 신상열은 모친의 생애를 말해주고, 마을주민들도 조두리가 고소설을 필사하고 낭독했던 기억을 전해주었다.

24) 김광순, <강릉추월전이라>,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84집, 박이정, 2011, 1-106쪽.

25)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93-143쪽에서는 71종의 필사본을 확인했다. 최근에 4종의 필사본 <강릉추월전>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본은 모두 75종이다.

10종과 경남 2종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은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기보다는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계승하려는 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전통을 지속한 양반 집성촌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의 성별과 신분계층을 살펴보았다. 영남지역에 풍부한 <강릉추월전>은 선비집안 여성이 필사하고 향유한 작품이다.²⁶⁾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추월전>은 선비집안 여성들이 농한기에 필사하고 향유하기에 적당한 분량과 여성들의 문학생활에 공감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필사본 고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분석하여 지역문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V.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

1. 가족이합의 서사와 선비집안 여성의 욕망

<강릉추월전>은 조선후기 혼란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이합의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영남지역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가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까닭은 무엇일까? <강릉추월전>은 가족 이합의 서사와 통속적인 드리마틱한 사건 전개를 통해서 여성 필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추월전>은 향촌사회 가난한 선비집안의 성리학적

26)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2권, 지식산업사, 2001, 119-127쪽. <강릉추월전>은 한국 고소설 중 25번째로 이본이 많은 작품인데 영남지역에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치관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유로운 생각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필사되고 향유되었다.²⁷⁾ 이 때문에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들은 남성의 가부장적 이념과 여성의 생활문화적 욕망이 공존하는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합의 서사를 내포한 <강릉추월전>은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족의 이별과 만남을 핵심적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가족이합의 서사와 연관된 갈등과 해결이 <강릉추월전>에 풍부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강릉추월전>에는 이춘백과 조부인, 이춘백과 이운학, 조부인과 이운학 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이합의 서사가 전개된다. 이러한 가족이합의 서사를 통해서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는 내용이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 조선 후기 관직 진출의 기회가 차단된 영남 선비집안에서는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도 기구한 운명으로 이별한 이춘백 가족의 상봉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정치적 사건보다 가족의 이별과 만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추월전>에 등장하는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은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통속적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더욱이 ‘강릉추월’이 새겨진 신비로운 옥소는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에 상당한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강릉추월전>에는 천정연분을 통한 결혼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한다. 천상적 연분은 옥문동에 표류한 이춘백과 조낭자의 국제결혼이다. 이들은 조선국 강릉의 이춘백과 중국 여남의 조낭자가 천상적 연분에 의해 운명적으로 결혼하게 된다. 비록 천상적 연분이라는 서사적 장치로 나타나지만, 조선 남성과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에게

27)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옮김, 『소설속의 독자』, 열린책들, 1996, 15-80쪽.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73-308쪽. 이혜경, 「독자반응 이론에 있어서의 독자와 독서」, 『인문학보』 5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63-89쪽.

도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왔을 것이다. <강릉추월전>에 등장하는 이춘백과 조낭자의 결혼은 여성 필사자의 욕망을 충족하기에 적당했던 사건이라 생각된다. 천정연분에 의한 신비로운 결혼은 선비집안 여성의 욕망이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춘백과 최양홍의 결혼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도착한 이춘백이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초남 죽지촌의 여성영웅 최양홍과 결혼한다. 이들의 결혼은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최양홍은 부모의 강압으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다. 결혼 첫날밤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최양홍은 독수공방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양홍은 수절을 거부하고 자신의 천상연분인 이춘백과 재혼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준다.²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최양홍이 개가를 선택한 사건은 기존의 성리학 관념을 넘어서고 있다. 당시 여성 필사자는 여성영웅 최양홍의 개가를 통해서 천정연분에 의한 운명적 결혼에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강릉추월전>에는 이운학과 어소저의 결혼도 등장한다. 이춘백과 조부인의 유복자로 출생한 이운학은 우여곡절 끝에 도적 장수백의 아들로 성장한다. 도적의 소굴에서 성장한 장해룡은 어천추의 딸 어소저와 결혼하게 된다. 그 결혼 덕분에 장해룡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장인 어천추가 사위 장해룡에게 ‘강릉추월’ 옥소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장인은 ‘강릉추월’ 옥소를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사위가 옥소를 불 때 청아한 소리가 났다. 이러한 ‘강릉추월’ 옥소의 신비로운 소리를 통해서 장해룡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장해룡과 어소저의 결혼은 이별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28) 노재순본 <강릉추월전>, 83-84쪽. 첩의 연분니 증군계 잇스오니 첩의 부모 아지 못흐와 다른디 정혼흐였다가 연분니 아닌고로 성의 예전의 실나니 죽삽고 첩의 독수공방의 이디지 혼즈 잇습다가 일전의 주기산 도사 와선 혼란 말니 그디와 연분잇난 스람니 다키와 유흐다가 모일모야의 낙화전의 즐계신니 그날은 연분잇난 스람이라

29)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 가문의 혼례관계』, 경인문화사, 2006, 16-164쪽.

이상에서 <강릉추월전>은 기구한 운명이나 전쟁 때문에 이별한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서사를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다. <강릉추월전>에는 다양한 결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이런 가족들의 이별과 만남을 거듭하는 <강릉추월전>은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생활문화적 욕망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릉추월전>은 가족이합의 서사를 통해서 여성 필사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이 <강릉추월전>을 즐겨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합의 서사는 남성보다 여성 필사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2.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의 욕망

조선후기 영남지역 선비들은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다. 실제로 영남지역 선비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탐구하여 과거 급제와 출장입상 및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영남지역 선비들은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향촌사회에 성리학적 이념을 교육하고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다.

이러한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의 집단적 욕망이 내면화되어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영남 남인계열 선비들은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보다는 학문과 수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성리학의 토착화를 모색하기도 했다.³⁰⁾ 이 때문에 영남지역 선비들은 성리학적 이상을 향촌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강릉추월전>에 등장하는 과거 급제를 통한 출장입상과 부귀공명에 대한 사건은 이춘백과 이운학 및 최양홍³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30) 정승모, 「경저·향저·별서와 조선후기 문화의 지역성」,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3, 189-204쪽.

31) 남장여자로 변장한 최양홍은 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영웅이다. 여성도 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영남지역 선비집안 여성에

다. 그리고 올바른 관료의 모습은 이춘백³²⁾과 이운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되었다. 그중에서도 이운학이 올바른 송사 처리와 백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이상적인 관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습척 죽설누의 올 야반의 출도하니... ...즉시 동원의 죄기하고 본관을 청하여 옥중 죄인을 잡으드려 문죄할지... ...서운길은 빙빙 익미한 놈이고 최지룡은 일긴 천총으로 저리 죄가 거중한이 즉각 타살하여 후습증기하고 서운길을 불너 분부하되 너난 신슈 불길하야 황익의 드러 무죄하다 하고 즉시 방송하니 일읍 백성이 뉘 안이 멍어스라 흐리요³³⁾

이운학의 관료적 모습은 조선후기 암행어사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삼척의 수령이 살인 죄인을 올바르게 처결하지 못하여 암행어사 이운학에게 부탁하게 된다. 삼척 죽서루에 출도한 이운학은 시운이 불행하여 죄인이 된 서운길은 무죄로 방면하고 최지룡은 죄가 중하여 즉시 타살하도록 처결한다. 이러한 암행어사 이운학의 올바른 송사 처리는 억울한 백성들의 환호를 받기에 충분하다. 조선후기 영남 선비집안에서는 이춘백과 이운학처럼 과거 급제를 통한 올바른 관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욕망했을 것이다.

이춘백 부자의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 최양홍의 출장입상 및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은 영남 남인계열 선비집안의 추로지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이 어려웠지만 학문 탐구와 수양을 통해서 관직 진출과 올바른 관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추월전>에는 주인공의 출장입상과 부귀공명의 욕망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강릉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32) 김광순본 1권, <강릉추월전>, 154-156쪽. 태평과거 보이거늘 춘백이 행장을 차려 경성에 올라가 과일을 당하여... ... 성상이 증찬하사 황희감사를 지수하시니... ...희주라 호는 고진 동국거계라 손천이 협약하고 민심이 효박하니 도입하는 후 신역을 덜어 풍속을 순케 하고 인성을 빙뽀니 일도거니 창성드리 모다 어즌 스롭라

33) 한중연본 <강릉추월전>, 102-103쪽.

추월전>을 통해서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과 가문 창달의 욕망을 풍부하게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이 차단된 영남 선비집안에서는 출장 입상과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은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성리학 적 전통이 강한 경북 북부지역 향촌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선비 집안 여성은 성리학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을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선비 집안 여성 필사자는 <강릉추월전>을 통해서 남성의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을 포함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여성 필사자들은 선비 집안 남성들의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협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3.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 강조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부모의 원수 갚기와 효열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후기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영남 남인계열 선비 집안에서는 성리학적 생활문화를 교육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 영남 지역 선비집안에서는 서당이나 서원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는 처사적 삶을 지향했다. 그래서 조선후기 성리학 통치 이념을 완벽하게 실천한 곳이 영남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영남지역 선비들은 성리학적 규범의식을 향촌사회에 더욱 철저하게 구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추월전>에는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을 강조하고 있다. <강릉추월전>은 친부모를 습격한 원수가 비록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⁴⁾ 필사본 기본형이 영남지역에 다

34) 노재순본, <강릉추월전>, 63-64. 어스 호령왈 그 니감스난 너 붓친이게이와 너난 너이 불공디친 원슈라 하고 군스를 호령하여 능증질할식 천췌 거지야 어스가 이감스가의 아달인줄 알고 충황질식하여 다시 아무말도 못하고 죽기만 지다릴제... .. 천췌난 죽죄지중한 놈이라 엇지 죽지 아니하리오 유혈니 낭증하야 숨흔니 헛터지고 칠빅니 썬더러져 죽난지라... ..천췌의 계집을 즈바니여 형증씨위흐니 위염의 놀니여 기절하여 음스하난지라

수 유통된 것은 부모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성리학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재순본>의 내천택, <나순본>의 신전택, <여승구본>의 김임규, 손씨, <홍시낙본>의 김수길, <이부영본>의 이유헌, <단국대본>의 김영이 할머니, <최열본>의 동성택, <금요경매본>의 정부인 삼강택, <김광순본>의 조두리 할머니 등과 같이 몰락한 선비 집안 여성 필사자는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 강조는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성리학적 규범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연형 이본은 부모를 습격한 원수를 처벌한 뒤에 자결한 아내의 효열 덕분에 주인공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안동지역에 유통된 <강릉추월전>³⁵⁾에는 부모의 원수 갚기도 중요하지만, 장인을 처벌하여 아내가 자결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부모의 원수 갚기에서는 남성의 효가 절대적이라면 아내의 원혼 풀어주기에서는 여성의 효열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강릉추월전> 부연형은 부모의 원수 갚기에서 억울하게 자결한 아내의 원혼 풀어주기를 첨가하여 여성의 효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³⁵⁾

기본형 이본에는 친부모의 원수 갚기가 핵심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춘백의 유복자로 출생한 이운학은 도적의 아들 장해룡으로 성장한다. 울남도 도적 어천추의 딸과 결혼한 장해룡은 장인이 친부모를 습격한 원수인지 알지 못한다. 과거에 급제한 이운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후에 장인 어천추를 처벌하게 된다. 장인에 대한 처벌은 부모의 원수 갚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부연형 이본은 친부모의 원수 갚기와 함께 억울하게 자결한 아내의 원혼 풀어주기가 핵심적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운학의 아내는 부친 어천추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효열로 대응했지만, 부친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³⁶⁾ 그래서 어소저는 부모를 죽인 남편과

35)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이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2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0, 125-156쪽. 김재웅, 「<강릉추월전> 연구」, 『한국학논집』 2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9, 243-265쪽.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사, 2008, 33-143쪽.

부부의 인연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결하게 된다. 이러한 친부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효열을 다한 어소저의 유교윤리적 규범의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강릉추월전>에는 유교윤리적 효열을 옹호하는 내용이 풍부하다. 그중에서도 조부인의 정절 훼손 위기와 도적녀의 개가권장에 대한 비판과 삼강오륜을 내세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한다.³⁷⁾ 이춘백의 아내 조부인의 정절 훼손 장면은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은 가부장 사회의 강요된 정절이라고 해도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이 도적에게 잡혀온 조부인에게 개가를 권장하던 도적녀에게 삼강오륜을 내세워 비판하는 장면에서도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절은 조선후기 성리학적 윤리를 강조하기 위한 규범적 측면이기도 하다. 여성의 정절은 성리학적 전통이 풍부한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들에게 좀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릉추월전>^⑦은 도적의 소굴에 잡혀간 조부인의 정절시험 대목이 생략되어 있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군담 대목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부모와 시부모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변모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안동지역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가 <강릉추월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모된 것이다. 선비집안의 여성들은

36) 김광순본, <강릉추월전> 1권, 208-210쪽. 천추이 쌀 일홈은 월미라 방성통곡흐며 급히 지아비갓티 업들여 이결왈 비나이다 비나이다 스도임전 비나이다 아부 디신 이첩을 죽여주시오.... ... 조부모임 봉직스를 첩의 몸으로 밋드러서 아비 죄을 속흐오려다 황송흐은 말습시오마난 첩의 정성으로 천지일월게 비러 귀즈손 만이나아 처세 만식 조선향화 유전호와 아비 죄을 속흐올리다.... ...원수의 여식이나 불상이나 아라 주시오 호고 칼을 들어 죽결하니

37) 노재순본 <강릉추월전>, 24-25쪽. 여르 계집드리 둘너 썩고 만가지로 달닌 마리 부닌은 잠관 차마 진정호소서 부닌 가군은 이미 죽었시니 싱각하여 썰쩍엿고 또 갈수도 업시니 츄츄 니공의기 무르드러 부닌을 위하여 현현중부를 가리여 줄그시니 잠말 말고 우리말 드러라.... ...용열하 기집여니로다 너니 망한 연드리 양반의 부닌 압퍼 그런 용열노 하나야.... ...소리를 놀피질너 꾸지저왈 천지삼강 분명흐고 일월명신 소정하그든 너 니마암을 직질소야 방의 화리를 드러 계집의 머리를 덮겨 씨우니 그 거집드리 너여 쫓겨나가며

<강릉추월전>을 필사하고 향유하면서도 여성의 정절을 훼손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지역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조부인이 도적에게 잡혀가서도 정절을 훼손당하는 장면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강릉추월전> 기본형은 남편의 원수 갚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부연형은 아내의 원한 풀어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형은 남성의 효성을 강조했다면 부연형은 여성의 효성을 조하기 위해 재생 대목을 첨가하여 서사의 변모를 보여준다. 기본형은 남편 이운학의 효가 강조된다면, 부연형은 아내 어소저의 효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남지역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부모의 원수 갚기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부모를 습격한 도적이 장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남성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형에서 억울하게 자결한 어소저의 효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연형으로 서사가 변모한 것이다.

4.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

조선후기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은 영남지역 선비집안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가문의 후사를 얻지 못한 며느리는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될 정도였다. 그만큼 가문의 운명은 후사를 담당할 자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손을 얻지 못하면 양자 삼기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³⁸⁾ 영남 선비집안 여성이 필사한 <강릉추월전>에는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하고 있다.

<강릉추월전>에는 해주감사로 부임한 이춘백이 도적의 습격을 받아 생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씨 가문의 혈통을 계승해야 할 아들

38)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7, 9-748쪽. 김두헌,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6-674쪽.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7-310쪽.

의 부재는 집안의 우환이 아닐 수 없다. 자식과 함께 해주로 부임했던 며느리의 소식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강원도 강릉의 이씨 집안에서는 아들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해주감사로 부임한 아들이 도적의 습격으로 물에 빠졌다는 소식만으로 자식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발단에 해당하는 이춘백이 도적의 습격을 당한 소식은 서사의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릉이씨 집안에서는 자식을 대신할 양자를 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춘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할 뿐이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에 등장하는 양자 삼기는 매우 중요하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 가문을 계승할 아들을 선택하는 비정상적 방식이 양자 삼기로 나타난다. 비록 비정상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 가문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양자 삼기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양자 삼기의 방식이 등장한다. 기본형에 비하여 부연형에는 양자 삼기 대목이 풍부하게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는 기본형에서 새로운 사건이 첨삭되면서 자식을 잃었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자를 선택해 가문을 계승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강릉추월전>에 등장하는 양자 삼기 대목은 아들이 없기에 발생한다. 남편을 잃고 백운암에 의탁한 조부인이 유복자를 낳았지만, 절집에서 키울 수 없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 자식이 없는 서영국에게 양자로 보낸다. 서영국의 양자로 성장하던 이운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마침 울남도 도적 장수백이 마을에 들어와 어린 운학을 데려가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식이 없는 서영국이 이운학을 양자로 삼았지만, 다시 도적에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이운학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는 사건이면서도 조선 후기 양자 삼기를 통한 가문 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이운학은 암행어사로 삼척의 옥사를 처결한 다음 서운길의 둘째 아들인 봉술을 서영국의 양자로 다시 정해준다. 이는

유복자로 출생한 자신을 맡아서 키워준 서영국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³⁹⁾ 더욱이 <강릉추월전>에는 양자 삼기가 좀 더 풍부하게 등장한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운학은 장시백의 둘째 아들로 장수백의 양자로 삼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도와준다. 작품의 이본에 따라서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운학을 도와준 어소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장인 어천추와 장수백의 제사를 받들고 가문을 계승할 수 있도록 양자 삼기를 해주기도 한다.⁴⁰⁾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은 억울하게 죽은 적대자의 원혼을 풀어주는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선비집안 여성이 양자 삼기의 방식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의 전통과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강릉추월전>은 1888년에서 1948년까지 영남지역에 21종이 유통되었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가 작품을 즐겨 필사하고 오랫동안 향유했기 때문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가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까닭을 텍스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 필사자의 성별과 신분계층을 분석했다. 작품

39) 노재순본 <강릉추월전>, 73-74쪽. 어스 서영국의 아달 업심 불상니 네기다가 쏘한 동성니요 윤길의 들치 아달 봉실러 더욱 영민히기로 윤길게 분분히야 봉실로 영국거 슈양즈를 정히니 윤길과 영국니 더욱 조화히더라

40) 김광순본, <강릉추월전>, 2권, 460-461쪽. 일접혀욱 업서 혼즈 고승함음을 불송이 여계 양즈를 정히슈교져 하야 중선달 시빅아라 하난 스람이 누만석 거부요 아달 형제 잇스온니 중즈의 일흠은 유용이요 들지는 희용이니 양즈 성예을 흐리라 하고 직시 나라의 계달하고 희용의 일흠을 곤쳐 희용이라하야 복병스를 씨킨 이 중선달이 희중의 부귀 목전의 천승 갖티여 희중의 모즈와 시빅의 부즈 축치사 그지업더라

의 필사자는 남성보다 여성(19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혼인을 앞둔 여성들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19종)에 작품을 집중적으로 필사했다. 영남지역 <강릉추월전>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촌사회의 가난한 선비집안 여성들이 필사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들은 성리학적 전통을 옹호하면서도 여성의 욕망을 투영한 <강릉추월전>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강릉추월전>에 나타난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문학적 대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릉추월전>에는 가족이합의 서사와 선비집안 여성의 욕망이 풍부하다. 이 작품에는 가족이합의 서사를 통한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과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려는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 더욱이 천정연분에 의한 결혼과 여성 영웅의 재가를 통해 이별한 가족의 극적 상봉에 작품의 통속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남성의 가부장적 이념과 여성의 생활문화적 욕망이 공존하는 <강릉추월전>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강릉추월전>에는 과거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이 풍부하다. 영남 남인계열 선비들은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래서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작품에 등장하는 출장입상과 부귀공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을 것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들은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의 집단적 욕망이 내면화된 <강릉추월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강릉추월전>에는 부모의 원수 갚기와 아내의 효열을 강조하고 있다.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부모를 습격한 장인을 처벌하는 남편의 효를 옹호하는 기본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자결한 아내의 원혼을 풀어주는 부연형 이본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아내의 효열보다 친부모의 원수 갚기를 강조하는 기본형 <강릉추월전> 이본을 오랫동안 필사하고 있다.

넷째, <강릉추월전>에는 양자 삼기와 가문 의식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조부인의 유복자로 출생한 이운학이 부친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안의 가문을 계승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선비집

안 여성 필사자는 양자 삼기를 통해서라도 가문을 계승하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성리학적 전통이 지속된 영남 선비집안 여성 필사자는 양자 삼기를 통해서라도 가문을 계승하려는 가부장적 가문 의식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24년 07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광순,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1권, 2권, 35권, 48권, 49권, 경인문화사, 1993.
- 김광순, <강릉추월전이라>,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84집, 박이정, 2011.
- 김경미, 「수용미학과 고소설 독자연구」,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73-493쪽.
- 김두헌,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여성 독자층과 독자 수용의 태도」, 『어문학』75집, 한국어문학회, 2002, 115-141쪽.
-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이본 형성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2003.
- 김재웅, 「<강릉추월전> 연구」, 『한국학논집』 2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9, 243-265쪽.
-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이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2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0, 125-156쪽.
- 김재웅, 「<강릉추월전>의 주인공, 정체성 탐구와 가족 상봉」, 『고소설연구』 3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129-159쪽.
-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219-250쪽.
- 김재웅, 「고소설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성주군 정갑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8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314-349쪽.
- 김재웅, 「고소설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합천군 조두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7, 229-264쪽.
-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 김재웅, 『고소설의 생명력과 미학적 세계』, 보고서, 2018.
- 김재웅, 『필사본 고소설의 지역별 유통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락, 2015.

- 김진영, 「〈강릉추월옥소전〉의 이합구조와 음악의 관계」, 『한국언어문학』 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논산문화원, 『논산 지역의 지명유래』, 논산문화원, 1994.
- 맹택영, 「한글필사본 고소설 생산계층의 소설관과 기능」, 『인문과학논집』 20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37-158쪽.
- 박광수, 「〈강릉추월전〉의 결말부 부연과 그 의미」, 『어문학』 7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179-192쪽.
- 박광수, 『강릉추월전연구』, 충남대출판부, 2002.
-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진단학보』 97집, 진단학회, 2004, 139-187쪽.
- 백순철, 「규방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여성문학연구회, 2005, 7-31쪽.
- 백운용, 「〈강릉추월전〉이 구조와 헤어짐과 만남」, 『어문론총』 3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109-141쪽.
- 서대석, 「〈소지현나삼재합〉계 변안소설 연구」, 『동서문화』 5집,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73, 179-223쪽.
-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옮김, 『소설속의 독자』, 열린책들, 1996.
- 유춘동, 『한국 고소설의 현장과 문화지형』, 소명출판사, 2017.
- 육제용, 「〈강릉추월전〉의 창작성 고찰」, 『어문학』 9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53-272쪽.
- 이민희, 「1920-30년대 고소설 향유 양상과 비평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8권,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13-147쪽.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175-191쪽.
-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73-308쪽.
- 이혜경, 「독자반응 이론에 있어서의 독자와 독서」, 『인문학보』 5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63-89쪽.
- 전상욱, 「〈월봉기〉군 소설의 작품세계」, 연세대 석사논문, 1995.

- 정승모, 「경저·향저·별서와 조선후기 문화의 지역성」,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3, 189-204쪽.
-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 가문의 혼례관계』, 경인문화사, 2006.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권, 지식산업사, 200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91.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박이정, 2006.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7.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의 주인공론』, 보고사, 2014.
-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31-257쪽.

Abstract

Tradition of transcription of Gangneung Chuwoljeon in
Yeongnam region and literary response of female
transcripts

Kim, Jae-woong

"Gangneung Chuwoljeon" was distributed abundantly with 21 versions in the Yeongnam region from 1888 to 1948. This is because the female scribes from the Seonbi family of the Yeongnam enjoyed transcribing and reading works. The reason why female scribes in the Seonbi family preferred "Gangneung Chuwoljeon" is empirically identified through text analysis and field investigation. Most of the scribes of "Gangneung Chuwoljeon" were women (19 types) rather than men. Because women who were about to get married intensively transcribed their works during the agricultural off-season (19 kinds), not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the class was an economically collapsed family of scholars in Hyangchon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is literary response of female scribes of "Gangneung Chuwoljeon" in the Yeongnam region. First, their works abundantly reveals the narrative of family agreement and the desire of female scribes in the Seonbi family. The female scribes in the Seonbi family preferred "Gangneung Chuwoljeon" in which men's patriarchal ideology and women's real-life and cultural desires coexist. It reflects the desire of a female scribe to reconstruct the collapsed family through the narrative of the family agreement and to have a dramatic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Second, in "Gangneung Chuwoljeon", there is a rich desire to enter

government positions through the gwageoje, the examination system to select talented people. The scholars of the Yeongnam Namin class devoted themselves to educating and practicing Neo-Confucianism ideology in a social situation where it was difficult to enter government positions. The women in the Yeongnam scholars continued the tradition of "Gangneung Chuwoljeon" transcription, in which the women's desire for the gwageoje and entry into government positions was internalized.

Third, in "Gangneung Chuwoljeon", the emphasis is on revenge of parents and filial piety of a wife. Female scribes preferred the first basic type, which advocates the filial piety of a husband who punishes the father-in-law who attacks his parents. In this process, the second supplementation type, which releases the resentment of a wife who unfairly kills herself, is relatively poor. The female scribes from the Yeongnam scholar's family emphasized the revenge of parents rather than the filial piety of a wife.

Fourth, "Gangneung Chuwoljeon" is rich in adoption of children and family rituals. Lee Woon-hak advocates a patriarchal family system that inherits the family without knowing the life or death of his father. The female scribes in the Yeongnam scholar's family accepted the patriarchal values of inheriting the family even through the adopted son.

keywords :

Yeongnam region, Gangneung Chuwoljeon, manuscript, distribution, tradition of manuscript, woman, manuscript, literary response, gender, class, Neo-Confucianism, family of scholars